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 옥 에오, 므라카, 페낭



강사: **강희정**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중국 불교미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 편집위원장, 국립광주박물관 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1, 2, 3권,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 『아편과 강통의 궁전』 등이 있다.

이 강의는 육로 실�크로드보다 늦게 발달한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를 개관하고, 바닷길을 따라 변창한 항구도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서역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해양루트에서도 실크와 도자기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막길에서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한 것처럼 바닷길에서는 항구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역사적으로 명멸한 도시 가운데 베트남의 옥 에오, 말레이시아의 므라카와 페낭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옥 에오는 가장 먼저 발달한 고대의 항구였으며, 로마의 금화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정화의 원정 이후 급속하게 발달한 므라카는 15세기에 동서의 물산들이 몰려든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국가였으며, 가장 늦게 발달한 페낭은 사람들이 모여든 항구였다. 페낭은 해상 실�크로드가 물자의 교역에서 시작해 사람의 교역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로써 실�크로드를 이용한 동서 교류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